

지구온난화 펀드 시장이 뜨겁다!

투신사 3곳 잇따라 기후펀드 출시 ... 첨단기술 · 고성장기업 투자

2007년 상반기에 인프라, 물 등의 글로벌 테마펀드들이 자금을 끌어모은 데 이어 하반기 들어선 지구온난화 관련 기후펀드가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펀드평가사 제로인과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2007년 상반기 간접투자시장은 2월말에 설정된 <맥쿼리IMM글로벌인프라재간접ClassA>와 <맥쿼리IMM글로벌인프라재간접ClassC1>이 총 1조4500억원의 자금을 모집해 최고 인기 펀드로 등극했다.

또 해외 주식형펀드인 <삼성글로벌Water주식종류형자1_A>가 6400억원의 자금을 끌어들이는 것을 비롯해 삼성투신운용의 물펀드들이 1조원에 가까운 돈을 흡수했다.

그러나 펀드 수익률은 맥쿼리의 인프라펀드의 경우 3개월 누적 수익률이 3%대에 불과하며, 삼성운용의 물펀드의 1개월 성과는 0.27%에 그쳤다.

2007년 상반기에는 <프랭클린템플턴 채권주식형자(A)>, <봉쥬르유럽 배당주식1>, <봉쥬르차이나 주식 2종류A>, <신한BNP 봉쥬르 중남미 플러스주식_자HClassA1>, <미래에셋솔로몬 아시아 퍼시픽 컨슈머주식1(CLASS-A)> 등의 펀드들도 각각 5000억~6000억원의 자금이 몰려 인기상품으로 부상했다.

하반기에 들어선 7월에는 <지구온난화> 테마를 앞세운 기후관련 해외주식형펀드들이 잇따라 출시되면서 펀드 시장을 달구고 있다.

최근 환경변화나 지구온난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기후펀드 출시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CS자산운용이 6월말 <퓨처에너지펀드>를 출시한 데 이어 대신투신운용은 7월초 <대신 지구온난화 펀드> 2종을 출시했다.

또 슈로더투신운용도 최근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아 7월9일부터 지구온난화펀드인 <슈로더 글로벌 기후변화펀드>를 선보일 계획이며 도이치투신운용과 KB자산운용도 지구온난화테마펀드를 만들어 금감원에 약관 승인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이미 출시했거나 준비 중인 <지구온난화관련 기후펀드>는 대체에너지 개발, 높은 에너지 효율성, 저탄소 연료 등의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처하고 첨단 기술을 보유, 고성장예측되는 글로벌 기업에 투자하는 글로벌 주식형펀드들이다.

물펀드나 탄소펀드 등의 환경펀드들에 비해 투자 대상 종목이 다양해 시장 흐름으로 인한 변동성을 비교적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미국 등 선진국 시장에서도 2007년 처음 소개된 생소한 펀드여서 과거 운용성과를 알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다.

대신투신운용의 펀드는 세계적인 환경투자전문 자산운용사인 SAM(Sustainable Asset Management)이 위탁운용을 맡는다.

또 슈로더투신의 기후변화펀드도 1개월 전에 동일 유형의 펀드가 홍콩 시장에 먼저 출시됐으며 영국에서 운용을 맡고 펀드매니저 외에 환경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운용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7/09>